

2021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류 수급 전망

국승용·한은수·김다정·한봉희·조남욱·홍승표

요약

2021년 김장 수요 및 김장용 주요 김장채소류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

- 금년 김장 의향 소비자 조사 결과, '전년 대비 많이 담글 것이다' 22.2%, '전년 대비 적게 담글 것이다' 21.6%
- 4인 가족 기준, 김장용 배추 포기 수는 22.1포기로 전년 대비 0.8% 증가, 무는 1.1% 증가한 8.7개
- 가격 하락으로 건고추 소비량 전년 대비 2.5% 증가, 마늘은 가격 상승하여 1.1% 감소

2021년 김장 10월에 일부 시작, 11월 하순~12월 상순에 김장하는 비율은 61.7%로 집중

- 11월 중순까지의 김장 비율은 27.4%로 전년(30.7%) 대비 낮은 편, 10월 기온 상승으로 일부 소비자는 김장 늦춰
- 김장 집중 시기인 11월 하순~12월 상순의 비율은 전년(59.2%)과 비슷한 61.7%
- 경기·강원지역은 11월 중순~12월 상순에 김장하는 비율이 83.3%, 호남은 12월 상순에 김장하는 비율이 61.5%

2021년 김장 시기에 출하되는 가을배추·마늘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 무·건고추는 증가 전망

- 김장철(11~12월) 배추·마늘은 생산 및 재고량이 감소하여 가격 상승, 무·건고추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
- 전체 김장 비용에서 배추, 무, 건고추, 마늘이 차지하는 비율은 56.0%(평년), 품목별로는 배추 24.1%, 무 7.6%

2021년 가구 소비자 중 63.3%(전년 62.0%)는 김장을 하고, 26.0%(23.9%)는 시판김치 구매

- 시판김치 구매처는 '인터넷 또는 TV 홈쇼핑(45.9%)', '대형유통업체(마트, 백화점 등)(25.1%)' 등의 순
- '인터넷 또는 TV 홈쇼핑' 구매는 전년 대비 3.0%p 증가, 일부(6.8%) 소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구매 선호

2021년 절임배추 구매 비율은 신선배추 대비 높고, 전년 대비 1.9%p 증가

- 금년 절임배추 구매 비율은 53.8%, 신선배추 40.8%, 절임배추와 신선배추를 같이 구매하는 비율은 5.5%
- 김장 시기 수육용 돼지고기 구매 소비자 비율은 72.8%, 구매량은 전년과 비슷, 구매 부위는 삼겹살(40.3%)을 가장 선호

01

2021년 김장채소류 수급 전망

1.1. 조사 개요

전국 가구 소비자 631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7~12일 온라인 조사 실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도시 가구 소비자패널 631명을 대상으로 2021년 김장철(10~12월) 가정 내 소비자 중심의 김장 수요, 김장김치 조달 형태, 김장 원·부재료 구매 형태 등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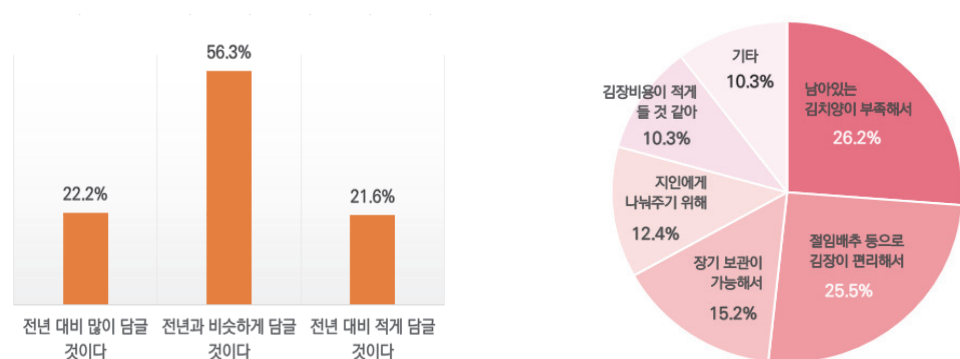
1.2. 김장 수요 전망

2021년 김장수요 전년 대비 '많이 담글 것이다' 22.2%, '적게 담글 것이다' 21.6%로 전년과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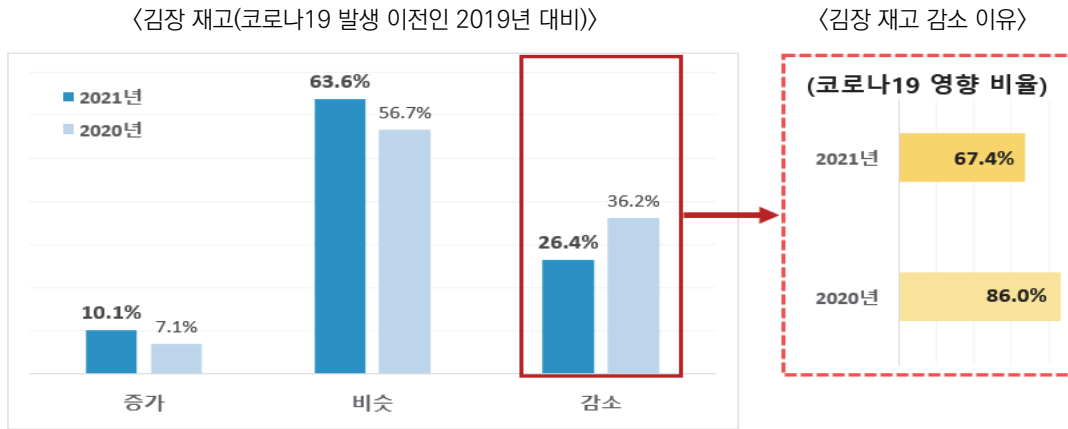
김장 수요 증가 이유는 '가정에 남아 있는 김치양이 부족해서(26.2%)', '절임배추 등으로 김장이 편리해서(25.5%)', '장기 보관이 가능해서(15.2%)', '지인에게 나눠주기 위해서(12.4%)' 등

- 2021년 가정 내 김치 재고가 감소한 소비자 비율은 26.4%, 비슷 63.6%, 증가 10.1%로 나타나 김치 재고는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 대비 감소, 가정 내 김치 재고가 감소한 소비자 중 67.4%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가정 내 식사가 늘어난 부분의 영향이 크다고 응답

〈그림 1〉 2021년 김장 소비 의향 및 전년 대비 증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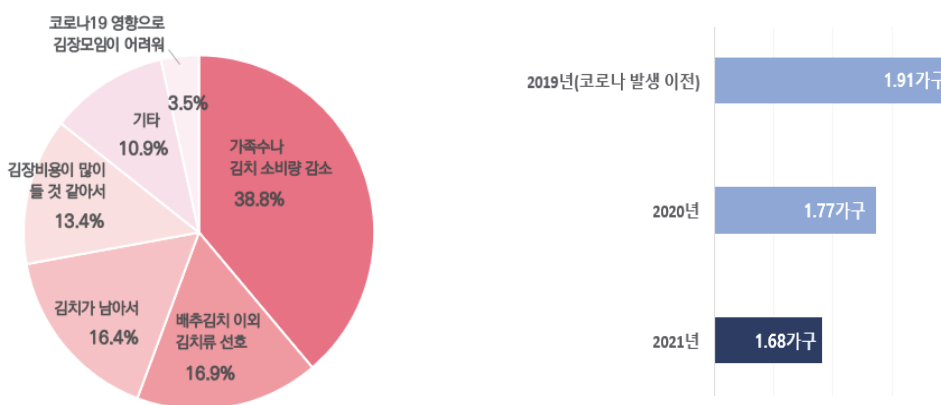
〈그림 2〉 가정 내 김장 재고(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김장 재고 감소 이유(코로나19 영향 비율)



김장 수요 감소 이유는 '가족 수나 김치 소비량 감소(38.8%)', '배추김치 이외의 김치류 선호도가 높아져서(16.9%)', '김치냉장고에 김치가 남아서(16.4%)', '김장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13.4%)' 등

- 코로나19 영향으로 김장 모임이 어려워 김장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5%
 - 김장을 함께하기 위해 모이는 가구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91가구에서 2021년 1.68가구로 감소, 가구 수 감소가 코로나19 영향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65.0%

〈그림 3〉 2021년 김장 소비 의향 전년 대비 감소 이유 및 김장 모임 평균 가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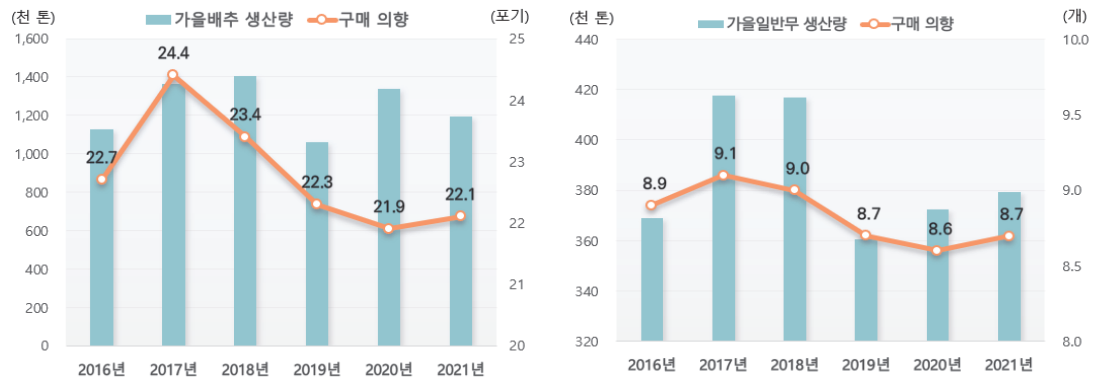
2021년 4인 가족 기준, 김장용 배추 포기 수는 22.1포기(전년 21.9포기), 무는 8.7개(전년 8.6개)

- 2021년 김장배추 가격은 전년 대비 높으나, 견고추 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소비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2020년 김장배추·무 소비량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감소, 2021년 소비량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치고, 평년 대비 각각 3.2%, 1.9% 감소

2021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류 수급 전망

- 무는 전년 대비 가격이 낮아 소비량이 소폭 증가
- 건고추 소비량은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 마늘은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

〈그림 4〉 가을배추·무 연도별 생산량 및 구매 의향 추이



자료: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2021년 시기별 김장 비율은 11월 하순~12월 상순 61.7%, 일부 소비자는 김장 늦출 의향 있어

2021년 전국 시기별 김장 비율은 11월 중순까지가 27.4%로 전년(30.7%) 대비 낮고, 김장 집중 시기인 11월 하순~12월 상순에는 전년(59.2%)과 비슷한 61.7%

- 2021년 김장 시기를 전년 대비 ‘비슷’이라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은 88.6%, ‘느림’ 8.8%, ‘빠름’ 2.6%
 - 10월 중순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일부 소비자는 김장을 늦추겠다고 응답¹⁾

경기·강원지역 김장 시기는 11월 중순~12월 상순이 83.3%, 영남은 11월 하순~12월 상순이 70.9%, 호남은 12월 상순이 61.5%로 높게 나타남

- 김장 적정 시기는 일 평균기온 4℃ 이하, 일 최저기온이 0℃ 이하로 유지되는 날이며, 지역별 적정 시기는 서울 11월 29일, 대전 12월 1일, 대구 12월 5일, 광주 12월 11일, 부산 1월 2일²⁾
- 기상청 3개월 전망 결과(10월 22일 11시 발표 기준)³⁾, 김장철인 11~12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각각 40%인 것으로 발표
 - 평년 범위, 11월 평균기온은 7.0~8.0℃, 12월은 0.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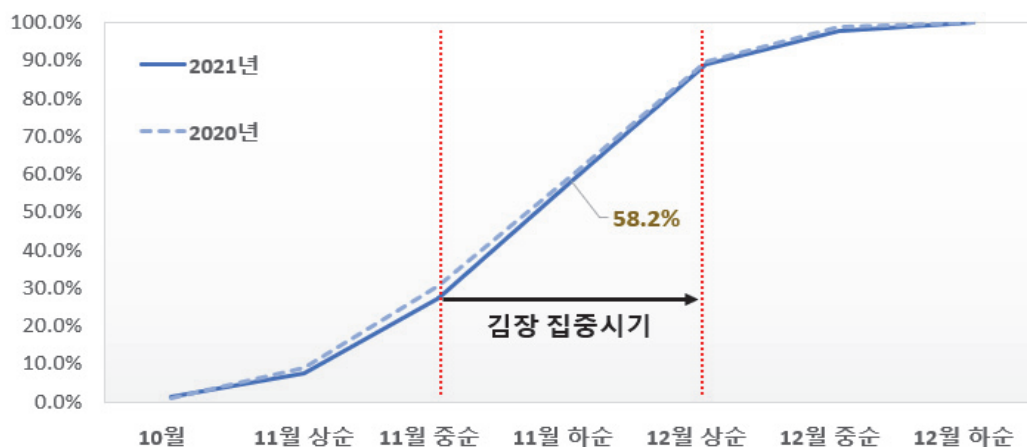
김장김치 소진 시기 ‘10~12개월’이라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은 28.1%, ‘7~9개월’ 27.2%, ‘4~6개월’, ‘12개월 초과’는 각각 20.2%, 3개월 이내는 4.3%

1) 10월 전국 평균기온 평년(15.2℃) 대비 1.6℃ 높은 16.8℃, 평균 최저기온 평년(9.7℃) 대비 2.7℃ 높은 12.4℃.

2) 웨더아이. <www.weatheri.co.kr>.

3) 기상청 날씨누리. <www.weather.go.kr>.

〈그림 5〉 2021년 시기별(10~12월) 김장 비율(누적)



〈표 1〉 2021년 시기별(10~12월) 김장 비율

구분	10월	11월 상순	11월 중순	11월 하순	12월 상순	12월 중순	12월 하순
전국	1.3% (1.1%)	6.4% (8.0%)	19.7% (21.6%)	30.8% (29.0%)	31.0% (30.3%)	8.6% (8.9%)	2.2% (1.1%)
경기·강원	2.3% (2.0%)	8.9% (10.6%)	24.5% (26.8%)	33.9% (33.1%)	24.9% (22.8%)	3.9% (3.5%)	1.6% (1.2%)
충청	0.0% (0.0%)	8.7% (13.0%)	39.1% (39.1%)	21.7% (17.4%)	21.7% (23.9%)	8.7% (6.5%)	0.0% (0.0%)
호남	0.0% (0.0%)	0.0% (0.0%)	7.7% (12.8%)	15.4% (17.9%)	61.5% (51.3%)	12.8% (15.4%)	2.6% (2.6%)
영남	0.0% (0.0%)	1.8% (2.7%)	4.5% (5.5%)	32.7% (28.2%)	38.2% (42.7%)	18.2% (20.0%)	4.5% (0.9%)

주: ()는 전년 수치임.

1.3. 김장채소류 생산·출하 및 가격 전망

2021년 김장철(11~12월)에 출하되는 가을배추·마늘 생산량 전년 대비 감소, 무·건고추는 증가

2021년 가을배추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3%, 8.0% 감소한 117만 5천 톤, 가을무는 평년 대비 1.9% 감소, 전년 대비 1.7% 증가한 37만 9천 톤

- 2021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이 낮아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4.2%, 7.1% 감소, 단수는 생육기(9~10월) 기온상승 영향 등으로 무름병 등 병해 발생이 증가하여 평년 대비 0.9% 감소
- 가을무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8%, 6.5% 감소, 단수는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7%, 5.0% 증가

〈표 2〉 가을배추·무 생산량 전망

구분	가을배추			가을무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 톤)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 톤)	
2021년	11,893	9,880	1,175.1	4,502	8,413	378.8	
2020년	13,854	9,670	1,339.7	4,633	8,039	372.4	
평년	12,805	9,971	1,276.8	4,816	8,016	386.0	
증감률 (%)	전년비	-14.2	2.2	-12.3	-2.8	4.7	1.7
	평년비	-7.1	-0.9	-8.0	-6.5	5.0	-1.9

주: 2021년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자료: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농업관측센터.

김장철 배추 출하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4.1%, 6.0% 감소, 무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0%, 3.8% 증가

- 11~12월 배추 출하량은 가을배추 생산량이 적어 전년 및 평년 대비 감소, 무는 파종기(8월) 잦은 비로 출하가 지연된 가을무가 11월에 본격 출하되면서 출하량 증가
 - 배추 정식 시기가 늦을수록 병충해가 적고 작황이 양호, 김장 시기를 늦출수록 배추 품질은 향상될 전망
- 10월부터 가을배추·무 출하 시작, 출하지는 계속 확대되어 김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1월에 전국 출하

〈표 3〉 김장철(11~12월) 배추·무 출하량 전망

단위: %

출하면적	배추		출하면적	무	
	단수	출하량		단수	출하량
-15.1	1.2	-14.1(-6.0)	-1.6	4.6	3.0(3.8)

주: ()는 평년 대비 증감률.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1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 작황 양호로 인해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3.0%, 13.2% 많은 8만 톤이며,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6%, 12.4% 적은 7만 3천 톤

〈표 4〉 건고추 생산량, 마늘 재고량 전망

구분	건고추			마늘(천 톤)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 톤)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21년산	33,373	239	79.9	96.4	19.2	72.9	
2020년산	31,146	193	60.1	106.2	22.1	79.7	
평년	30,538	231	70.5	107.0	20.0	83.2	
증감률 (%)	전년비	7.1	24.0	33.0	-9.2	-13.1	-8.6
	평년비	9.3	3.6	13.2	-9.9	-4.1	-12.4

주: 마늘 재고량은 10월 20일 저장·가공 표본업체 조사 기준.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2021년 김장철(11~12월)에 출하되는 가을배추·마늘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 무·건고추는 하락 전망

김장철 배추 포기당 상품 도매가격은 전년(1,640원) 및 평년(2,050원) 대비 상승, 무는 전년(1,100원) 및 평년(1,330원) 대비 하락

- 절임배추 20kg당(신선배추 7~8포기) 도매가격은 전년(28,000원) 및 평년(26,330원) 대비 상승
- 고추(화건)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전년(26,990원) 및 평년(18,460원) 대비 하락, 깎마늘 kg당 도매 가격은 전년(6,880원) 및 평년(6,450원) 대비 상승

전체 김장 비용에서 김장채소류(배추, 무, 건고추, 마늘)가 차지하는 비율은 56.0%(평년 기준), 품목별로는 배추, 건고추 비율이 각각 24.1%, 20.1%로 높고, 무 7.6%, 마늘 4.2%

〈표 5〉 김장채소류 김장철(11~12월) 평균 도·소매가격 동향(상품)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년
절임배추(20kg)		26,000	25,000	24,000	31,000	28,000	26,330
신선배추(포기)	도매	2,770	1,720	1,460	2,940	1,640	2,050
	소매	3,810	2,660	2,940	4,590	3,110	3,280
무(개)	도매	2,050	830	680	2,150	1,100	1,330
	소매	2,620	1,460	3,400	2,730	1,960	2,060
건고추(kg)	도매	9,670	21,110	19,830	14,430	26,990	18,460
	소매	17,700	16,540	28,520	20,640	35,990	26,110
깎마늘(kg)	도매	7,330	6,520	5,940	4,090	6,880	6,450
	소매	10,320	9,550	8,810	7,030	9,910	9,420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대아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

02

2021년 소비자 김장 의향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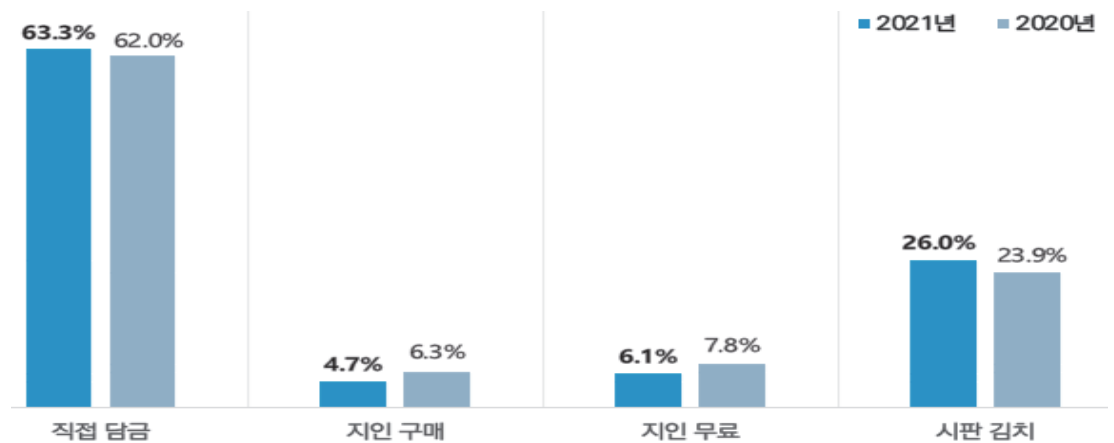
2.1. 2021년 김장김치 조달 형태

2021년 가구 소비자 중 63.3%는 김장을 하고, 26.0%는 시판김치 구매

2021년 김장을 직접 담그는 소비자 비율은 2020년과 비슷한 63.3%, 지인 구매 또는 무료 조달은 각각 4.7%, 6.1%

-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는 이유는 ‘가족이 선호하는 입맛을 맞출 수가 있어서(49.2%)’, ‘시판김치보다 원료 품질을 믿을 수가 있어서(31.7%)’, ‘절임배추 등으로 김장이 편리해서(13.4%)’ 순

〈그림 6〉 가구 소비자의 김장김치 조달 형태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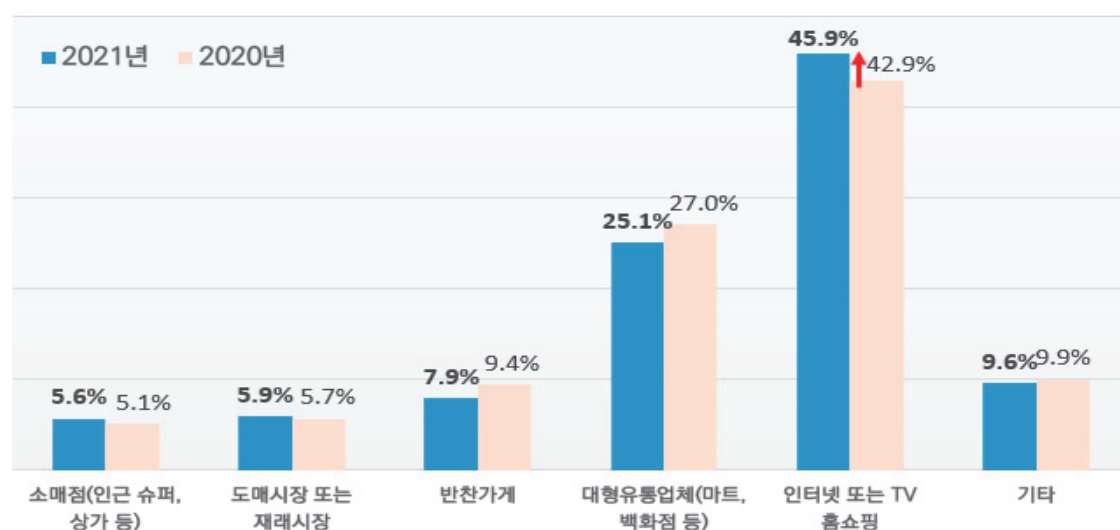
김장을 담그지 않고 시판(포장)김치를 구매하는 비율은 2020년 대비 2.1%p 증가한 26.0%

- 시판김치 구매 이유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구입이 가능해서(47.4%)’, ‘김치 담그기가 번거롭거나 바빠서(33.3%)’가 80% 이상으로 대부분
- 시판김치 구입 시 ‘맛 또는 품질(52.7%)’, ‘선호 브랜드(20.3%)’, ‘원재료의 국내산 여부(16.9%)’ 고려
- 시판김치는 대부분 국내산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소비자 중 일부(7.1%)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시판김치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시판김치 구매처는 ‘인터넷 또는 TV 홈쇼핑(45.9%)’, ‘대형유통업체(마트, 백화점 등)(25.1%)’ 등의 순

-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구매처를 변경한 소비자는 6.8%이며, 대부분 비대면 구매가 가능한 ‘인터넷 또는 TV 홈쇼핑’을 선호(2020년 대비 3.0%p 증가), ‘대형유통업체(마트, 백화점 등)’ 구매 비율은 2020년 대비 1.9%p 감소

〈그림 7〉 가구 소비자의 시판김치 구매처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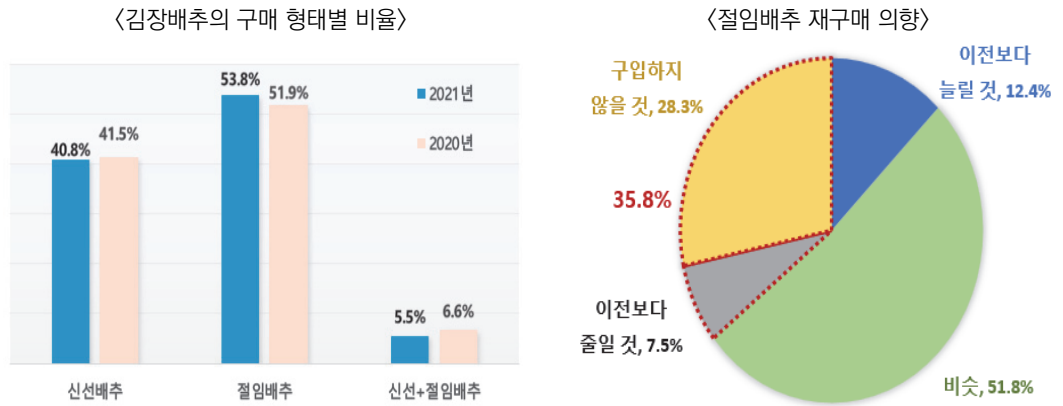
2.2. 2021년 소비자의 김장 원·부재료 구매 행태

2021년 절임배추 구매 비율은 신선배추 대비 높고, 2020년 대비 1.9%p 증가

2021년 김장을 담그는 소비자의 김장배추 형태별 구매 비율은 절임배추(53.8%)가 신선배추(40.8%) 대비 높고, 신선배추와 절임배추를 모두 구매하는 비율은 5.5%

- 절임배추 구매 이유는 ‘절임 과정이 번거로워서(71.1%)’, ‘담그는 시간이 절약돼서(21.2%)’가 대부분
 - 절임배추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향후 구매량을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1.8%, 구매를 하지 않거나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5.8%
 - 향후 절임배추 구매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맛과 위생, 절임 정도의 적정 수준, 포장 상태, 절임에 사용된 배추 품질 등에 불만
- 신선배추 구매 이유는 ‘지인 등으로부터 손쉽게 얻을 수 있어서(33.0%)’, ‘절임배추 위생, 포장 등의 상태를 믿을 수 없어서(27.6%)’, ‘절임배추를 사용해 담그면 입맛에 맞지 않아서(16.7%)’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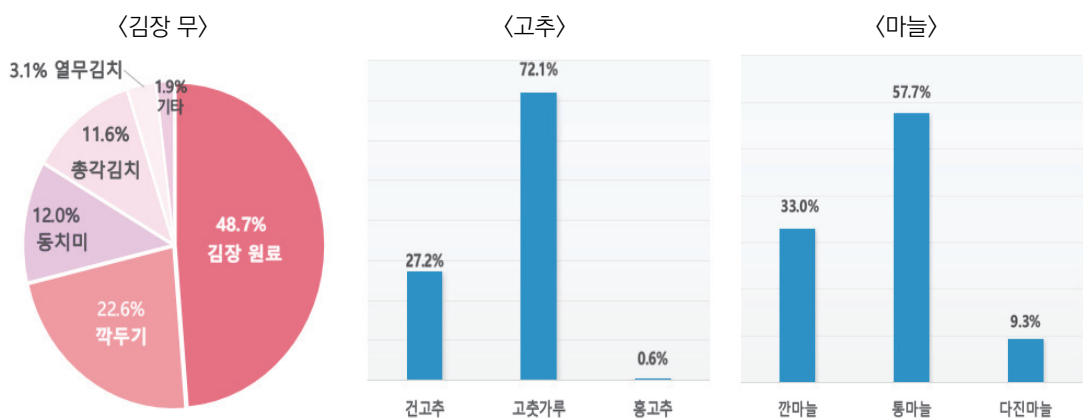
<그림 8> 김장배추의 구매 형태별 비율, 절임배추 재구매 의향



김장 무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김치소 또는 김장 원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48.7%로 가장 높고, 고추는 고춧가루 (72.1%), 마늘은 통마늘(57.7%) 형태의 구매 의향이 높게 나타남

- 김장 무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배추김치 원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48.7%, 깍두기(22.6%), 동치미 (12.0%), 총각김치(11.6%), 열무김치(3.1%) 등의 원료로도 사용
- 고추는 고춧가루 형태의 구매 의향이 72.1%로 가장 높으며, 건고추(27.2%), 홍고추(0.6%) 순 - 김장철 이전인 수확기(8~10월) 구매 비율이 83.2%로 높으며, 대부분 국내산 사용
- 마늘은 통마늘 형태의 구매 의향이 57.7%로 가장 높으며, 간마늘 33.0%, 다진마늘 9.3%

<그림 9> 김장 무, 고추, 마늘 구매 형태별 비율



소비자 대부분(96.7%) 무, 고춧가루, 마늘 등을 구매하여 김치소를 가정에서 직접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시간 절약 및 편리성 이유 등으로 도매시장 등에서 김치소를 구매하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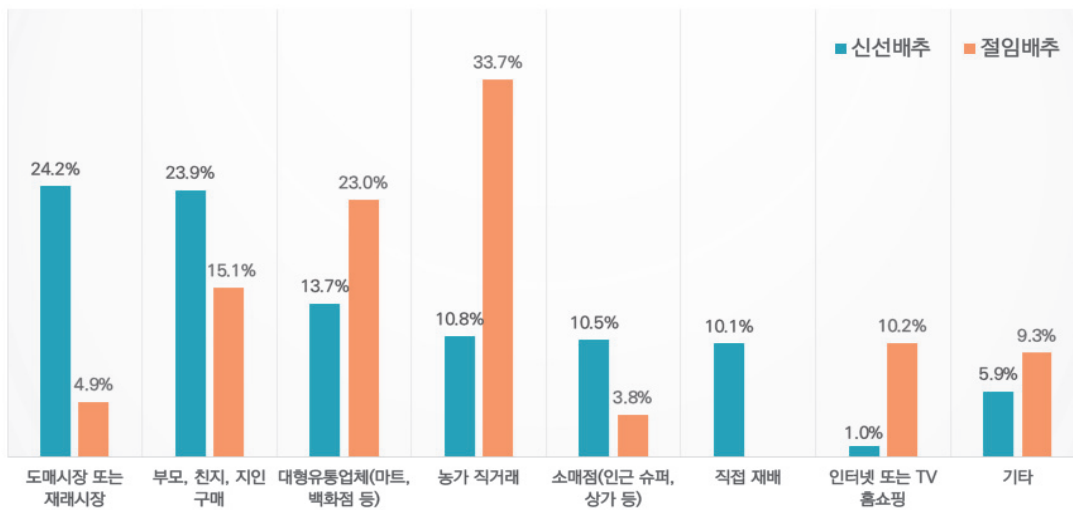
- 김치소를 직접 만드는 이유는 ‘가족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51.1%)’, ‘김치소의 원재료, 위생, 포장 등의 상태를 믿을 수 없어서(47.6%)’가 대부분

신선배추·무·마늘은 ‘도매시장 또는 재래시장’, 절임배추는 ‘농가 직거래’, 고추는 ‘지인을 통한 구매’ 선호

신선배추 구매처는 ‘도매시장 또는 재래시장(24.2%)’, ‘부모, 친지, 지인 구매(23.9%)’가 높으며, 절임배추는 ‘농가 직거래(33.7%)’, ‘대형유통업체(마트, 백화점 등)(23.0%)’ 등의 순

- 무는 ‘도매시장 또는 재래시장(33.6%)’, ‘대형유통업체(마트, 백화점 등)(23.0%)’ 순으로 높고, ‘부모, 친지, 지인을 통한 구매’가 14.1%로 나타남
- 마늘은 ‘도매시장 또는 재래시장(34.0%)’, ‘대형유통업체(마트, 백화점 등)(20.6%)’, ‘부모, 친지, 지인을 통한 구매(20.6%)’ 등의 순
- 고추는 ‘부모, 친지, 지인을 통한 구매’와 ‘농가 직거래’를 통한 구매 비율이 각각 46.2%, 18.7%
- 금년 코로나19 발생 영향으로 구매처가 달라진 소비자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 기존 구매처 유지

〈그림 10〉 신선·절임배추 구매처별 비율



〈표 6〉 무·고추·마늘 구매처별 비율

구분	도매시장 또는 재래시장	농가 직거래	대형유통업체 (마트, 백화점 등)	부모, 친지, 지인 구매	인터넷 또는 TV 홈쇼핑
무	33.6%	7.6%	23.0%	14.1%	1.3%
고추	14.4%	18.7%	9.2%	46.2%	3.2%
마늘	34.0%	8.8%	20.6%	20.6%	1.7%

김장을 할 때 수육용 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 비율 72.8%, 구매량은 2020년과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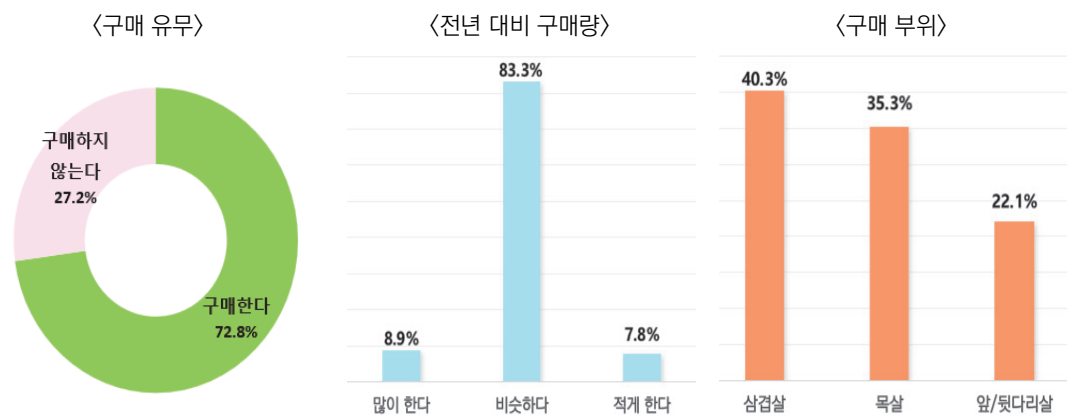
수육용 돼지고기 구매량이 전년 대비 '비슷하다'라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 83.3%로 김장철 수육용 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구매량은 2020년과 비슷

- 김장철 수육용 돼지고기는 대부분(94.9%) 국내산을 구매하며, 구매 부위는 '삼겹살(40.3%)', '목살(35.3%)', '앞/뒷다리살(22.1%)' 등의 순

김장철 수육용 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72.8%)의 김장김치 조달 형태별 비율은 '직접 담금' 60.8%, '지인 구매 또는 무료 조달' 25.2%, '시판김치 구매' 14.0%

- 김장을 직접 하지 않고, 시판김치를 구매하는 소비자도 수육용 돼지고기를 구매

〈그림 11〉 김장철 돼지고기(수육용) 구매 유무, 전년 대비 구매량, 구매 부위



2.3. 시사점

2021년 주요 김장채소류 중 배추 생산량 감소, 건고추는 증가

주요 양념 채소인 건고추는 생산량 증가, 가격 하락

- 김장채소류 구입 비용의 약 36%를 차지하는 건고추의 가격은 전년 대비 35% 하락
- 깻마늘 가격은 전년 대비 16% 상승하나, 비율은 7%

가을배추 생산량이 감소하여 배추 가격은 상승, 무는 하락

- 10월 전국 기온 상승 등으로 배추 주산지에 무름병 등 병해 발생이 증가하여 품질 저하, 김장 집중 시기인 11월 하순~12월 상순에 출하 비율이 가장 높은 남부지방의 작황은 상대적으로 양호, 출하 시기까지 철저한 생육 관리가 필요
 - 김장 시기를 늦출수록 주재료인 배추의 품질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
- 가을무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 전망

김장채소 소비량 감소에 대응 필요

주요 김장채소류 소비량 감소가 예상되어 소비 확대 및 공급 방안 마련이 필요

- 김장배추·무 소비량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전년과 비슷하고 평년 대비 적어 소비 촉진이 필요
- 김장채소류 구매가 많은 도매시장 또는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구매처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 지역별 김장 행사 온라인 방식 전환에 대한 홍보 및 참여 유도에 노력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김장모임 추진을 장려

소비자 불안과 김장 의향을 위축시키는 언론 보도 자제 필요

- 중부지방 일부 주산지에서 배추 무름병 등 병해가 확산된 것은 사실이나 기온이 낮아지면서 피해 확산 정도가 크지 않고, 남부지방의 작황은 양호
- 언론 보도를 통해 배추 공급 불안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되면 소비자의 김장 의향을 축소시켜 김장채소류 전반의 소비 감소가 야기됨

참고문헌

기상청 날씨누리. <<http://www.weather.go.kr/weather/main.jsp>>. 검색일: 2021. 10. 25.

서울시농수산물공사. <<https://www.garak.co.kr/main/main.do>>. 검색일: 2021. 10. 25.

웨더아이. <<https://www.weatheri.co.kr>>. 검색일: 2021. 10. 1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KAMIS). <<https://www.kamis.or.kr/customer/main/main.do>>. 검색일: 2021. 10. 25.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1. 10. 25.

KREI 현안분석

감 수	이용선 명예선임연구위원	061-820-2320	yslee@krei.re.kr
내 용 문 의	국승용 선임연구위원	061-820-2275	gouksy@krei.re.kr
발간물문의	유정인 선임전문원	061-820-2282	edela@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87호

2021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류 수급 전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1. 11.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